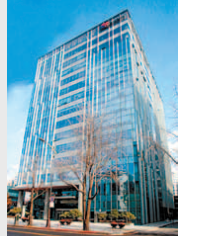


대상, 본사 사옥 이전... '종로 시대' 개막

대상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종로구 인의동 소재 종로플레이스타워로 이전했다. 지하 1층과 지상 2~6층, 13~14층 등을 일차 형태로 사용한다.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직원 복지를 위한 카페 테리아,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공간 흠어져 있던 부서가 한 곳에 모이게 된 만큼 임직원 간 소통·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 폭발적 성장



레저 및 오프로드 마니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수입 픽업트럭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쉐보레 '리얼 뉴 콜로라도'. 사진제공 | 쉐보레

쉐보레 '콜로라도', 압도적 가성비로 인기

국내 수입 픽업트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픽업트럭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생소한 모델이었지만, 시장이 형성된 지 불과 2년 만에 캠핑과 아웃도어 레저 열풍을 타고 수입차 시장 인기 세그먼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모델명	1~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쉐보레 콜로라도	1409	548	689	579	146	3371대
포드 레인저	485	120	41	163	15	824대
지프 글래디에이터	417	89	76	74	78	734대

수입 픽업트럭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기 모델 포드·지프 픽업트럭 판매량도 크게 앞질러 강력한 견인능력·동력과 합리적 가격 눈길 전국 400곳의 A/S센터 통해 차량 관리 가능

특히 지난 8월 콜로라도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 판매량인 689대를 달성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올 한 해 콜로라도가 어떤 최종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쉐보레 콜로라도, 수입 픽업트럭 시장 개척

수입 픽업트럭 시장의 성장에는 쉐보레 콜로라도의 활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9년 8월에 국내 첫 선을 보인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쉐보레 콜로라도는 출시와 함께 레저 및 오프로드 마니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20년 9월 부분변경을 거친 '리얼 뉴 콜로라도'를 출시한 뒤 현재까지 수입 픽업트럭 세그먼트에서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년 사이 지프 글래디에이터, 포드 레인저 등 여러 모델이 수입 픽업트럭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지만 콜로라도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올해 10월까지 3371대를 판매해 각각 824대와 734대에 그친 포드 레인저와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판매량에서 크게 앞지르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가성비로 꾸준한 인기

콜로라도가 이처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다. 콜로라도는 최고출력 312마력, 최대토크 38kg.m를 발휘하는 고성능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3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쉐보레 픽업트럭 헤리티지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점도 판매량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요 사양을 살펴보면 잘 만든 픽업트럭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우선 적재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Spray-on Bedliner)가 코팅되어 있어 부식 및 손상 걱정이 없다. 또 적은 힘으로도 안전하고 부드럽게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아주는 이지 리프트 및 로우 테일게이트, 적재 및 하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코너 스텝 및 코너 핸드그립, 어두운 곳에서 적재함을 비추는 카고 램프 등 다양한 편의

의사양이 적용되어 있다.

콜로라도 오너들이 인정하는 또 다른 강점은 전국 400여 곳에 자리한 쉐보레 A/S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수입 브랜드들의 A/S 인프라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이와 달리 콜로라도는 수입 모델임에도 국산 모델과 같이 고객들이 출중할 서비스 네트워크망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전문적인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이 통했다

콜로라도의 뛰어난 활용성을 보여주는 마케팅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쉐보레는 4월부터 6월까지 방영된 tvN의 '바퀴 달린 집2'에 콜로라도를 지원했다. 트레일러 하우스를 견인하며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콜로라도의 강력한 견인 및 동력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콜로라도는 고강성 풀 박스 프레임바디로 구성된 정통 픽업트럭 모델답게 최대 3.2톤에 이르는 초대형 카라반을 견인할 수 있다. 시즌에 비해 더 무거운 트레일러 하우스도 거뜬하게 끌었다. 트레일러에 적용돼 있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를 이용하면 별 추가 장치 없이도 트레일링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은 많으나, 픽업트럭에 대한 니즈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콜로라도와 같은 인기 모델은 꾸준한 판매량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 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내 수입 픽업트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삼성전자, 앞으로 30대 임원 나온다

임원 직급 통합·성과 전문성 검증 등 새 인사제도 도입

삼성전자가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통합하고, 직급별 표준채류기간을 폐지하면서 30대 임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29일 발표했다. 새 인사제도는 2022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먼저 영공사업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 없이 인재를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직원 승격의 기본 조건이던 직급별 표준채류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승격세션'을 도입했다.

또 회사 인트라넷에 표기된 직급과 사번 정보를 삭제하고, 매년 3월 진행하던 공식 승격자 발표도 폐지한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도 도입한다.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에서 성과에 따라 누구나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력개발 기회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사내 FA' 제도를 도입해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 부여한다. 또 국내 및 해외법인의 젊은 우수 인력을 선발해 일정기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ST 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도 신규 도입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자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서울빛초롱축제' 개막...12월 5일까지 진행



서울관광재단이 '2021 서울빛초롱축제'를 26일 개막했다.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청계천 청계포폭포부터 장동교까지 700m 구간에서 진행

한다. 올해 주제는 '빛으로 물든 서울 힐링의 숲'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희망의 등불을 켜는 의미를 담았다. 느릿나무, 비밀의 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 '힐링의 숲'을 주제로 한 56세트, 83점의 조형 제작물을 운영한다. 9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한 한지 등 공모전 수상작인 '별처럼 빛나는 고향이', '도심 숲', '달무리'(사진)도 이번 축제에서 선보인다.

'서울빛초롱축제'는 온라인에서 AR(증강현실)을 활용해 관람할 수도 있다. 서울빛초롱축제 AR전시 홈페이지(www.stolantern-ar.com)에 접속해 주요 작품(10세트)을 관람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제주 해녀의 생생한 모습 그대로"...국내 최초 디지털 패브릭 패널 전시

전시 | 양중훈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 출신 양중훈 교수의 작품 30여 점 전시 29일부터 오픈...국내 최대 크기 작품 눈길 디지털 활용·아날로그 출력 작품 동시 감상



국내 최초로 디지털 패브릭 패널을 활용한 제주 해녀 사진전이 29일 오픈식과 함께 오픈형으로 제주국제공항 1층 4, 5번 게이트홀에서 열린다.

20여 년간 현장에서 제주 해녀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 온 제주출신 사진가이자 전시의 총 기획자인 양중훈 교수(상명대 디지털이미지연구소장)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패브릭 패널 제주 해녀 사진전'. 전시작품의 크기 또한 초대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디지털 패브릭 패널을 활용한 작품과 아날로그형 출력작품을 동시에 전시해 제주 해녀의 생생한 모습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감상할 수 있다. 특

히 가로 3.6m, 세로 2.4m 크기의 초대형 작품을 14점이나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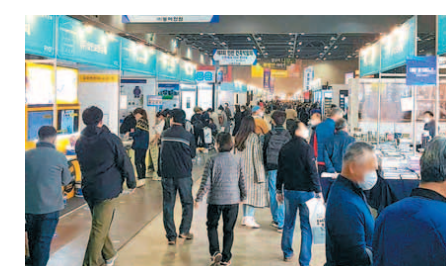
양 교수는 "디지털 패브릭 패널은 발광기법을 활용해 작품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소재이다. 빛의 은은한 내·외부 소통을 통해 해녀라는 피사체의 표현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몰입형 사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전에는 50여 명의 제주 해녀들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 해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제주문화예술회관이 후원했으며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가 협찬했다. 메타버스101과 제이케이아트컴퍼니가 공동주관하고 전시 및 행사 기획은 상명대 디지털이미지연구소가 맡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20여 년간 현장에서 제주 해녀의 삶을 찍어 온 양중훈 교수의 사진전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디지털 패브릭 패널을 활용한 작품들(사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사진제공 | 양중훈 교수

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등 7대 박람회 개최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7대 박람회'가 12월 2~5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제57회 MBC건축박람회'를 필두로 '제18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홈&리빙페어' 등 7개 전시회가 동시에 열린다. 특히 '제57회 MBC건축박람회'는 최근 주목받는 전원주택과 이동식주택 등의 정보를 비롯해 주택설계 및 시공,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품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제18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에서는 등산 및 캠핑용품, 캠핑카·트레일러 및 용품, 아웃도어 용품, 헬스·휘트니스, 골프용품, 기타 스포츠 및 레저관련 용품 등을 전시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면 무료 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